



함께 푸는 미스터리 <V>해답

휴양지의 살인사건과 4인방

최교수는 방안에 있는 유일주씨, 고이문씨, 안삼열씨, 정사달씨 등 4명의 용의자들을 확 둘러 보았다. 그 자리에는 강경감외에도 김순자여사와 변오해씨 그리고 양육씨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최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중에서 그날 밤 11시와 11시45분 사이의 매우 중요한 시간에 이 방에서 나간 일은 있으나 김상도씨 사무실에는 들어 간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

면 한분이나 또는 여러분 모두가 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구 범행을 저질렀고 또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상도씨는 밤11시와 11시45분 사이에 살해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일찍 살해됐지요, 그날밤 회관내 전화에서 호출한 기록을 여기 갖고 있어요

김순자씨와 변오해씨, 당신들 두 사람은 이 살인사건을 음모하고 수행한 것이요, 변오해씨는 이 방으로 오기 전에 실제로 김상도씨를 살해하고 네사람의 지문을 증거로 남겼어요, 바에서 일하던 김순자씨는 시간을 두고 양주병과 성냥갑, 부탄라이터에서 지문을 모았던 것입니다.”

습니다. 그런데 살인하기로 작심한 사람이 뻔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액의 돈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최교수는 손바닥으로 앞이마를 비빈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의 어

최교수는 강서장쪽으로 몸을 돌렸다.

“김상도씨는 밤 11시와 11시 45분 사이에 살해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일찍 살해되었지요, 그런 증거가 있나가요? 그날밤 회관내 전화에서 호출한 기록을 여기 갖고 있어요, 회관을 폐점한 뒤 바의 유료전화로부

터 2번의 통화가 있었어요, 두번째 것은 11시 22분 고이문씨 댁 전화번호로 건 전화인데 고이문씨의 주장대로 집의 부인에게 건 전화인가 봅니다. 그러나 첫번째 전화는 11시 1분에 이 방으로 걸려 온 것입니다. 이 전화는 당신 변오해씨가 받았는데 이미 사망한 김상도씨와 통화를 하는 척했지요, 누가 그 전화를 걸었나가요? 그 시간에 이 방에는 있지 않았으나 회관내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김순자여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가운데 최교수의 낮은 또렷한 음성은 계속되었다.

“김순자씨와 변오해씨, 당신들 두 사람은 이 살인사건을 음모하고 수행한 것이요, 변오해씨는 이 방으로 오기 전에 실제로 김상도씨를 살해하고 네사람의 지문을 증거로 남겼어요, 바에서 일하던 김순자씨는 시간을 두고 양주병과 글라스와 성냥갑과 부탄 라이터에서 지문을 모았던 것입니다. 또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씨는 남편 김상도씨가 남긴 유산을 몽땅 상속한 뒤 변오해씨와 함께 나눠 가질테니까요.”

몇달 뒤 변오해와 김순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ST**